

## 병원 법당 일손없이 포교 '포기'

스님·자원봉사자 턱없이 부족  
봉사 의무·호스피스 교육 필요  
본사 13곳 조사... 타종교의 10% 수준

"스님들조차도 병원 법당을 영인 실로 여기고 기도나 해주면 되는 곳 쯤으로 생각합니다. 포교 포교 하는데, 이견(병원법당활동) 포교 차원이 아니라 불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예요. 그런데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병원법당 운영현황에 대해 묻자 서울아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홍 스님은 자조적인 탄성을 했다. 서울 보훈병원 법당 지도법사 선문 스님의 말은 차라리 다투어 가깝다.

"70세가 넘는 자원봉사 보살님을 쉬게 해 드려야 하는데, 사람(자원봉사자)이 없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환자들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도 가슴 아프고..."

불교계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 법당들이 인력과 재원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가 전국의 17개 병원 법당 중 동국대 일산·경주·포항 병원, 건국대병원, 국립경향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보훈병원, 영남대의료원, 건양대병원 등 13곳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병원 법당이 법당을 운영할 스님과 자원봉사자 부족, 그리고 열악한 재정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당 중 2명 이상의 스님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상당 기간 지도법사가 없어 법당 운영이 되지 않았던 곳도 있었다.

건양대병원 법당의 경우 올해 성원 스님이 오기 전까지 지도법사가 자주 바뀌고 그 와중에 공적인 경우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다. 올해 초 개원한 울산대병원 법당은 말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 폐쇄했다고 한 스님은 전했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는 종립 동국대 경주병원·경주한방병원·포항병원의 경우는 한 스님이 세 곳의 법당을 맡고 있고, 동국대 일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의 법당들도 스님 부족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중계 스님의 경우 직원 친절교육과 정신과 병동 프로그램 참여, 외부인사 접견 등 업무가 과중해 환자들을 돌볼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병원 재단 측에 인력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법당 지도법사 견허 스님은 "암 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스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워했고, 다른 병원 지도법사들 역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하소연한다.

개신교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맛있는 김치 따뜻한 세상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과 대한성공회관장 박경조 주교(맨 왼쪽) 등이 11월 9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행복나눔 김장행사'에 참가,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SK 텔레콤이 후원하고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총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100톤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 1만 세대에게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원목실(법당과 같은 개념)에 15명의 관계자가 일하고 있고, 가톨릭의 강남 성모병원 원목실에서 7명의 신부와 수녀가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불교계 인력수치는 10% 수준을 밑돈다.

병원 법당 지도법사들은 "환자들을 돌보고, 상담에 응하고, 법당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제도의 장치 마련해야  
병원 법당들은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스님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동국대 종비생(학인 스님)들과 강원 학인들이 의무적으로 사회봉사(병원법당 포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삼선승가대가 호스피스 강좌를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 30명의 학인들이 서울 보훈병원에서 일주일에 2번 환자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자원봉사인력은 병원 법당의 지역사찰과 연계하는 방법이 가장 효

율적이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불광사 신도들이, 삼성서울병원은 능인선원 신도들이, 영남대의료원은 영남불교대학신도들이 승통을 띄워 주고 있다.

특히 호스피스 등 종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병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적이다. 영남대의료원 불자회는 이를 위해 '병원불교학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세부 운영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병원불교학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맞는 신행과 환자 간 토론 및 나눔 시간, 의학적 식 정보교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장기적으로는 호스피스와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해 병원 법당이 필요한 종합적인 기능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영남대 의료원 지도법사 정법 스님은 "병원법당이 스님 개인 원력에 기대는 반면, 개신교나 가톨릭은 지역 교회나 교구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명우 기자 mw@buddhapia.com

## 내년 군포교 예산 올해의 '두배'

군종특별교구 상임위 16억9천만원 확정

2007년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예산이 대폭 증액돼 군포교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11월 2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교구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2007년도 사업 예산을 16억 895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7억 9538만원보다 8억 941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군종특별교구 출범에 따른 대의 활동으로 후원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종단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2억 5천만원 수준이며 만민총합 등의 후원금이 9억원으로 늘었다.

중분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보다 예산이 두배로 늘어나 활발한 군포교 지원사업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실제로 군종교구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설·추석 합동 다례법회 병행, 연대급 법사 포교 활동 지원, 법회 시정각

교재 구입, 수계불자 안심통신발송, 군종병 집체 교육, 군포교 연구실 운영, 군포교지 발행 등을 확정했다.

특히 군포교 연구실 운영은 군포교 경협이 풍부한 정선진 예비역 군법사를 실장으로 임명해 군현실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어서 군포교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군신도회 활성화를 위해 관음회 불자 수련회, 예불회 관리 지원은 물론 군포교 관련단체와 군포교팀, 예비역 법사단 수련회 등도 지원할 계획이며 군법사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배정해 내년 군종교구의 활동이 기대된다.

일면 스님은 "그동안 종단과 사부대중의 도움으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며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한 스님이 법당 3곳 '관리'  
실제로 이번엔 조사한 13개 병원

도반의 향기	
운재향 문화재 해설가	17면
군신에 국보급 성보문화재	7면
수행지도자에게 듣는	
생활 속 수행, 어떻게?	18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백운 스님 '법회경'	24~25면
시방세계	9면
현등사 진신사리 이운하던 날	

**현대불교가 안국동으로**  
11월 11일 사무실 옮겼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기존의 청운동 사무실을 연수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신문 제작·광선 등 제반업무는 11월 13일부터 종로구 안국동 새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주소: 서울 서초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편집국: 광고영업부(02)2004-8234-55, 팩스(02)737-0698  
광고영업부(02)2004-8213-7, 팩스(02)737-0696

경전수행통한 깨달음 10대 강역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통광 스님  
원각경/11월 18일

봉선사 설립전, 031)527-1951-3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진품차사 초 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빛고을불교아카데미중계 4번  
11월 15일 오후 7시, 통광 스님 '수행의마상'

##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LED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부 조정 적임)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불촉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불촉등)

광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 공과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사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